

발반사마사지가 위암절제술 환자의 수술후 동통에 미치는 영향

한 형 화(아주대학교 병원 간호부)

[연구목적] 위암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적용한 발반사마사지가 수술후 동통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임상에서 발반사마사지를 간호중재로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반사마사지가 위암절제술 환자의 수술후 동통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둘째, 발반사마사지가 위암절제술 환자의 수술후 필요시(prn) 진통제 사용횟수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연구대상자]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병원의 외과계 병동과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위암절제술 환자를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다음 기준에 만족되는 사람을 임의 표출하였다.

- 1)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환자
- 2) 위암진단을 처음 받고 항암치료없이 위아전 절제술(subtotal gastrectomy)을 받은 성인 환자
- 3) 발에 개방성 상처나 출혈성 질환을 포함하여 특별한 질환이 없는 환자
- 4) 수술후 정맥내 PCA(patient control analgesia)를 부착한 환자
- 5)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환자
- 6) 주기적으로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는 환자
- 7) 발반사마사지의 경험이 없는 환자

[연구도구]

1. 동통 측정

- 1) 동통 정도 : 박정숙(1984)이 수정, 보완한 시각적 상사척도(VAS)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2) 필요시(prn) 진통제 사용횟수 : 진통제 사용횟수는 의무기록지를 통해 조사한다.

2. 발반사마사지법

반사마사지는 기초단계, 반사점마사지 그리고 임파마사지로 구성되었으며 소요시간은 총 20분이다. 발반사마사지 시행은 본 연구자가 직접 실험처치를 하였으며 현재 중환자실에 근무하면서 발반사마사지 연구를 위해 스포츠마사지 2급 및 건강마사지 2급 자격증을 수여 받았고 발반사마사지 교육과정으로 한국 선수 트레이너 협회에서 총 34시간의 이론과 실습을 훈련받았다.

[연구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두 집단의 제 변수별 동질성은 χ^2 -test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의 차이검정을 위해서는 t-test, 실험군의 실험효과 검정을 위해서는 paired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제 1 가설 : “발반사마사지를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수술후 동통을 낮게 지각할 것이다”는 아래와 같이 부가설 1, 2가 지지됨에 따라 지지되었다.
 - ① 1 부가설 : “수술 후 6시간에 발반사마사지를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동통을 낮게 지각할 것이다.”는 유의수준 5%수준에서 지지되었다($t=9.41, p=.000$).
 - ② 2 부가설 : “수술 후 12시간에 발반사마사지를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동통을 낮게 지각할 것이다.”는 유의수준 5%수준에서 지지되었다($t=6.63, p=.000$).
- 2) 제 2 가설 : “발반사마사지를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수술 후 6시간부터 수술 후 12시간까지 필요시(prn) 진통제 사용 횟수가 적을 것이다.”는 유의수준 5%수준에서 지지되었다($t=3.35, p=.004$).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동질성 검증결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수술경험, 입원장소에 따라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2) ‘발반사마사지를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수술 후 동통을 낮게 지각할 것이다’라는 제 1 가설은 지지되었다. 즉, 발반사마사지 전·후의 동통점수 차이가 수술후 6시간대에서는 실험군의 경우 1.41($t=9.41, p=.000$), 대조군의 경우 .12($t=1.46, p=.163$)이고, 수술후 12시간대에서는 실험군의 경우 2.12($t=6.63, p=.000$), 대조군의 경우 .18($t=1.85, p=.083$)로 2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실험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발반사마사지가 위암절제술환자의 동통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지지해 주었다.
- 3) ‘발반사마사지를 받은 실험군은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수술 후 6시간부터 수술 후 12시간까지 필요시(prn) 진통제 사용 횟수가 적을 것이다.’라는 제 2 가설은 지지되었다.

대상자의 수술 후 6시간부터 수술 후 12시간까지 필요시 진통제 사용 횟수에서 실험군의 경우 .00회, 대조군의 경우 평균 .41회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35, p=.004$). 따라서, 발반사마사지는 위암절제술후 환자의 진통제 사용율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발반사마사지는 위암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수술 후 동통 감소에 효과적인 간호중재라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발반사마사지는 임상에서 동통 감소에 효과적인 간호중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발반사마사지를 위암절제술 환자의 동통을 감소시키는 간호중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수술의 종류에 따라 발반사마사지의 동통감소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발반사마사지 후 동통 감소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발반사마사지를 가족을 참여하여 돕도록 하는 지지간호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발반사마사지를 경험한 환자들의 언어적 반응을 근거로 발반사마사지의 제반효과를 적용하고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